

정치 공방 난무하는 미국 출판가

글_허선

요즘 미국 출판계는 곧 다가올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관련 서적들로 분주함을 맞고 있다. 작년 부시행정부가 2번째 집권을 시작한 이래로 부시 행정부의 무능력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안티-부시 책들이 속속들이 출간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의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책들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보수적 토대는 그대로 공유하되 새로운 정치적 방안을 제시하는 책들도 많이 나왔다. 반면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출판사들은 민주당의 이데올로기와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소개하는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도 있다. 부시 행정부의 행보에 대한 낮은 지지율과 곧 코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의 여파로 미국 출판계는 당분간 정치적 공방이 난무하는 또 하나의 유세장으로 변모할 듯 싶다.

안티-부시 책들

부시에 대한 지지율이 2003년 70%에서 현재 2006년 30%대로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듯 안티 부시 책들은 단지 좌파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수파측으로부터도 발간되고 있다. 더블데이에서 출간된 전 레이건 관료 브루스 바트레트의 《협잡꾼: 어떻게 조지 W. 부시가 미국을 망하게 만들고 레이건의 유산을 배신했는가》(Impostor: How George W. Bush Bankrupted America and Betrayed the Reagan Legacy)은 미디어의 주목과 출판사의 대대적인 홍보로 서점가를 휘저었다. 그는 레이건 행정부 당시 경제 위원회의 수장으로 일했으며 1981년 '레이저노믹스'라고 불리는 공급측 중심의 세금삭감을 주도했던 미국 공화당 주문의 저자이기도 하다. 또한 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 재무부 사무차장으로도 근무하였다. 하지만 그는 협잡꾼이라는 이 책을 통해 부시의 결함투성의 지출과 대실패한 의료보험프로그램에 대해 심하게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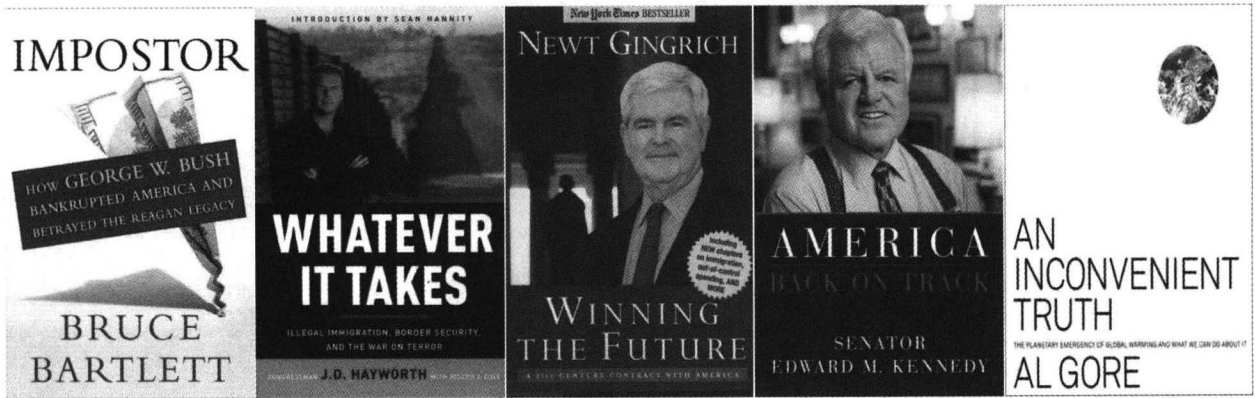
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제안했던 사회보장제도를 사장시킨 부시의 계획성 없는 정책 발전 과정을 비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브루스 바트레트는 책 발간과 더불어 보수적인 달라스 썬크탱크인 국가기관의 정책분석가의 자리를 잃게 되었다. 하지만 이 책은 대중들의 생각을 잘 대변해주는 내용과 보수파들의 움직임 안에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는 점이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조금은 부드러운 면에서 부시정부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원의원 J. D 헤이워스는 《어떠한 것들이 들더라도 하겠다》(Whatever it takes)에서 현재 백악관이 취하는 태도보다 좀 더 과격하게 불법 이민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뉴 킹그리치는 《미래의 승리》(Winning the Future)에서 현 미국이 처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과는 다른 방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보수성의 제시

부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보수적인 면을 강조하는 책들도 나오고 있다. 보수성이라는 동일한 이념의 사유는 공유하되 현재 상황에 맞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메리 체니의 《이번에는 제 차례예요》(It's My Turn: A Daughter's Chronicle of Political Life)는 아버지를 부대통령으로 가지고 있는 그녀의 정치적 경험과 의견 그리고 정치적인 논쟁에 대한 문제들을 솔직하고 담대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 가족의 이야기는 물론 2000, 2004 선 거캠페인의 뒷이야기를 통해 그녀의 삶을 통해 바라보는 보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의 하락하는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대중을 상대로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 책들은 통계적으로 보수성향의 독자들, 정치중독자들 그리고 대중역사 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라디오 호스트로서 보수적 성향을 대표하는 마이클 세비지는 《정치적 동물원》(Political Zoo), 《세비지 나라》(The Savage Nation: Saving America from the Liberal Assault on Our Borders, Language, and Culture), 세비지 나라의 연작 《적의 내부》(The Enemy Within: Saving America from the Liberal Assault on Our Schools, Faith, and Military) 그리고 최근의 성공작 《진보주의는 정신병이다》(Liberalism Is a Mental Disorder: Savage Solutions) 등 진보주의에 대한 맹렬한 공격과 보수주의적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책들을 발표하였다.

민주당의 호기

부시행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공화당 자체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요즘, 민주당측으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생각들을 내보이는데 이보다 더 이상 좋은 시간은 없다. 상원의원 에드워드 M. 케네디의 《제자리에 돌아온 미국》(America Back on Track)을 통해 그의 정치적 역사를 들려주고 있다. 그는 과거 케네디 대통령과 동생 케네디에 대한 이야기부터 현 세계화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까지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의 정치적 색깔과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부시정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실려 있다. 특히 넓은 의미에서 세계의 안전을 내다보기보다는 테러에 대한 전쟁에 날카로운 지적을 잇기 않고 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정부보조의 문제점, 최소임금에 대한 언급은 물론 제안을 통해 좋은 방법에 대한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알 고어는 《적절하지 못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을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치가이자 환경보호 전문가인 알 고어는 세계를 향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그의 넓은 견해를 개인의 이야기와 관찰을 통해 알리고 있는데 이는 그의 정치적 생각들을 배경으로 깔고 있어 추후 그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중간선거가 열렸다. 뜨거웠던 선거전에 비해 서점가는 썰렁하기만 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유권자 자신의 성향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출판사들은 보수, 진보 진영의 두터운 독자층과 더불어 형성되어 있다. 보수주의 성향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출판사들의 역사도 길다. 단순히 현재의 정치적 성향에만 따라가는 출판이 아니라 주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와 관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1947년 시작된 레그너리와 같은 출판사는 뉴욕의 대형출판사들이 다루지 않던 보수주의적 책들을 출간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은 물론 신 장르를 만들어냈다. 우리네 출판사들도 시류의 흐름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보수주의든 진보주의든 자신만의 시장을 개척하고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 글을 쓴 허선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출판학을 전공했고 2003년 미국에서 PMA Publishing University 과정을 수료했다. 논문으로 <도서 및 저작권의 수출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평화출판사와 진선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출판마케팅협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서울 삼청동길 입구에서 갤러리 진선(www.galleryjinsun.com)을 운영하고 있다.